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ENSEMBLE

가제 : 앙상블

저자 : Aja Gabel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

장르 : 소설/ 성장소설, 현대소설



\* 독일,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지만 늘 함께 공유한 과거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강력한 데뷔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verything I Never Told You」**의 작가 셀레스테 응

\* “사랑과 인생, 음악에 관한 현명하고 힘 있는 소설. 읽으면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eating Arrangements」**의 작가 매기 쉽스테드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는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동과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악 4중주단으로 한 팀이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 역시 순수한 야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음악이라는 소재가 선사하는 예술적 아름다움, 팀 플레이의 가치를 전한다.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작가가 쓴 이야기답게 음악에 대한 묘사와 연주자들 간의 관계, 음악계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특별한 소설이다.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반 네스 현악 4중주단은 마침 다른 행사로 학교를 찾아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포도리오에게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솔리스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잘 나가는 음악가답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네 사람의 연주를 지켜봤다. 졸업 연주회는 그저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엄격히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시간이자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에이전트나 음악계 관계자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 네스 4중주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에서 열리는 ‘에스터하지 경연’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힘겹게, 가까스로 이어온 음악 활동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팀의 리더인 자나도,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브릿도, 가장 어리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올리스트 헨리도, 그리고 최연장자인 첼리스트 대니엘도 오랫동안 우승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포도리오와의 짧은 만남은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실 포도리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자나는 그 해 올해 에스터하지 경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회나 대회가 임박하면 다른 사람의 공연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깨고 자나가 졸업 연주회 이를 전에 열린 포도리오의 협연을 보러 간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졸업 연주회를 무사히 마치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호텔로 가는 길을 굳이 직접 안내해달라는 포도리오의 노골적인 요구도 자나는 역시나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연 우승, 오직 그것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 꾸역꾸역 음악을 해온 지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다.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던 브릿과 대니엘은 갑작스러운 대니엘의 이별 통보로 짧게 끝이 나고 브릿은 쉽게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한다. 나이도 어리고 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지도 않은 헨리가 누가 봐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대니엘이 브릿과의 관계는 물론 술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철저히 노력파인 자신이 나머지 팀원들, 특히 헨리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다. 헨리 역시 첫 과외가 끝난 뒤 포도리오가 팀원들 몰래 내민 명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4중주단으로 활동하는 대신 솔로로 나서보라고, 뉴욕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주겠다는 포도리오의 적극적인 섭외에 헨리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쥐기만 했지만 그 날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느꼈던 처음의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기계적인 조화가 아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진한 감동의 가치를 아는 네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연과 기회를 앞두고 각자 갈등의 기로에 선다. 소설은 이들이 풋풋한 젊은이들이던 시절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가슴 아픈 이별과 결혼,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비밀, 기억이 밀거름이 된 협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소설이라는 매체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만한 이야기다.

#### <저자 소개>

아자 가벨(Aja Gabel)은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 웨슬리언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enyon Review」에 실린 에세이 "The Sparrows in France"로 동 잡지로부터 '2015 미국 최고의 에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tlantic Monthly」, 「Inprint」, Sewanee Writers' Conference, Literary Arts Oregon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UNQUIET SPIRITS: Whisky, Ghosts, Murder

가제 : 위태로운 정신: 위스키와 영혼, 그리고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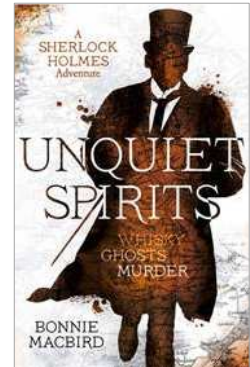
저자 : Bonnie MacBird

출판사: Collins Crime Club

발행일: 2017년 7월 2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서스펜스



- \* “모두가 사랑하는 셜록 홈즈와 그가 사는 세상에 대한 우아한 찬사이자 그 세상을 영리하게 엿대 이트한 소설” – 에드가 상, 앤소니 상 수상작 『*Teller of Tales: The Life of Arthur Conan Doyle*』의 작가 대니얼 스타샤워
- \* “속도감 있는 액션과 추리, 스코틀랜드 산악지대의 고딕풍 배경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홈즈와 왓슨을 창의적으로,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 – 앤소니 상, 맥카비티 상 수상작 『*Emma Fielding mysteries*』의 작가 다나 캐머론

셜록 홈즈와 왓슨의 이야기는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로 재탄생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셜록의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팬들을 위해 전작 『*Art in the Blood*』로 베이커가 221B의 세상을 되살린 작가는 이 소설에서도 두 사람의 세계를 다시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왓슨 박사를 실존 인물로 보고, 런던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오랫동안 문서로만 보존되었던 왓슨의 기록을 자신에게 은밀히 제공했다는 전제부터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야기는, 그 귀중한 자료를 손에 넣은 운 좋은 작가를 매개로 다시 왓슨의 사건 기록이 작성된 1889년 겨울로 우리를 데려간다. 여전히 충동적이고 제멋대로인 홈즈가 이번에는 술을 직접 만들겠다고 방안을 화학 실험실로 만들어놓은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위스키 생산자 집안에 막내 며느리인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오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의 막이 열린다.

지역 의원이자 영국 전체에 잘 알려진 위스키 사업가 맥라렌 집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건 10년 전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벌어졌을 때부터였다.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낳은 여주인이 어느 겨울 밤, 누군가의 허위 연락을 받고 늦은 저녁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고원지대 곳곳에 자리한 성들은 하나같이 사연 있는 귀신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후 맥라렌 성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채 세 살도 되지 않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일이고, 집안의 하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는데 죽기 직전 귀신이 자신을 밀었다고 증언한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맥라렌 부인이 사망한 당시 집안 곳곳에 남겨진 눈 밝은 발자국이나 멀쩡하던 호출 벨이 전부 고장난 채로 발견된 것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가족들에게나, 집안 하인들 모두에게 찌찌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는 셜록과 왓슨을 찾아온 맥라렌의 며느리가 막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녀가 베이커 가까지 찾아오게 만든 이

상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죽음은 아니지만, 역시나 귀신의 짓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희한한 사건이었다.

새빨간 머리를 허리 아래까지 늘어뜨린 피오나라는 이름의 아리따운 하녀는 맥라렌 성에서 지내는 모든 남자들이 한번쯤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어쨌게든 피오나와 사귀어보려고 애태우는 젊은이들도 많았고, 피오나 역시 그런 시선을 즐기며 누가 봐도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하는 눈빛과 몸짓을 드러내곤 했다.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학문적으로는 무지할지 몰라도 타고난 영민함과 눈치로 흠즈를 찾아온 며느리를 비롯한 맥라렌 성의 식구들에게도 사랑 받던 피오나가 느닷없이 자취를 감추자, 다들 처음에는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 안에서는 물론 성 바깥 마을 어디에도 함께 사라진 사람은 없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엌에서 신발 한 짝이 발견된 것도 어딘가 이상했다. 결국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누군가 피오나를 납치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뒤늦게 수색대가 꾸러졌지만 어디에서도 피오나나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3일 뒤, 커다란 바구니에 담긴 피오나가 성 근처에서 발견됐다. 그 풍성한 머리카락은 두피가 다 드러나도록 바짝 깎인 상태로, 밧줄에 꼼꼼히 묶여 약에 취해 몽롱한 눈빛으로 힘없이 바구니에 눕혀져 있었다. 피오나는 납치되기 전 주변에 온통 발산하던 생기와 발랄함을 모두 잃고 말았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도 전혀 내놓지 못했다. 나태한 경찰 대신 피오나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셋째 며느리는 누군가 맥라렌 집안 앞으로 가짜 다이너마이트와 의미를 해석하기 힘든 시 한 편을 남긴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조무래기의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집안에 수십 명이나 되는 가족과 하인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성인 여성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또 다시 귀신의 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10년 전 죽은 성 여주인의 원한이라는 추측까지 흘러 나왔다. 대체 누가 대낮에 납치를 벌인 것일까? 며느리의 추측대로 한창 승승장구 중인 위스키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정말 코웃음으로 넘겨야 할 아무 근거 없는 소리일까?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의 대명사가 된 설록 흠즈를 뒤흔든 귀신의 실체, 왓슨에게 자신이 죽고 50년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 세상에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을 만큼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스코틀랜드 고성 귀신 이야기가 시작된다.

#### <저자 소개>

보니 맥버드(Bonnie MacBird)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음악과 영화를 공부하고 현재 극작가, 연극배우, UCLA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SILVER SUITCASE

가제 : 은색 상자

저자 : Terrie Todd

출판사: Waterfall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26일

분량 : 362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소설, 종교소설



**\* 2017년 워드 어워드(Word Award) ‘최우수 역사소설상’ 수상, 2011, 2012년 ‘기독교 작가 조합 데뷔 소설 컨테스트’ 결선 진출작**

**\* 아마존 킨들 스토어 ‘감동적인 종교소설’ 부문 1위, 킨들 스토어 전체 26위**

아직 엄마가 너무나도 필요한 나이인 열두 살에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은 뒤, 코넬리아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여름 주일학교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해서 받은 작은 예수님 액자도 아빠 몰래 예수님 사진을 뜯어버렸다. 어릴 때부터 워낙 독실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 자연스레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었던 코넬리아는 지금까지 믿었던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도 빼앗아가고, 어린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학교까지 그만뒀어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런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 철없이 학교 가기 싫다고 투덜대는 남동생에게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에게도 마음 놓고 속상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코넬리아는 대신 일기장을 펼쳤다. 만년필에 가만히 잉크를 찍고, 날짜를 쓰고 잉크가 마르기를 잠시 기다리면서, 마음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흐르고 열일곱 살이 되어 신에 대한 믿음을 거의 저버린 채 오직 일기장에 모든 걸 토로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며 살던 코넬리아에게 또 한 번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다. 가끔은 반신반의했던 신에 대한 믿음을 강그리 앗아간 사건이었다.

1939년 초여름, 코넬리아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골 농장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거센 영향력이 서서히 느껴지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헨리 로버트라는 이름의 남자는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구석이 있었지만, 코넬리아는 금세 그와 가까워졌다. 9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이후 농사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영락없는 시골 처녀로 자란 그녀에게 빨간 차를 타고 온 흰칠한 헨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뽀뽀하게 잘 다려진 옷, 반짝반짝 광 나는 구두는 시골 생활과 영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보다 코넬리아를 놀라게 한 건, 헨리와 함께 온 나이 든 여성이었다. 이미 5년 전 세상을 떠난 코넬리아의 엄마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이야기하는 헨리의 어머니는 분명 코넬리아가 수백 번도 넘게 응시했던 엄마아빠의 결혼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헨리는 코넬리아가 아주 어릴 때 자신의 집에 놀러 왔던 일까지 기억해냈다.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헨리네 집 고양이와 어떻게 놀았는지 코넬리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사람은 말 못할 외로움에 마음

을 꿈꿨고 살았던 코넬리아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코넬리아와 헨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겨우 다시 찾은 행복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발발하고, 헨리는 코넬리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 입대를 선택했다. 가슴 아픈 이별 후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기 위해 헬리팩스로 가는 기차에 오른 헨리는 그만 열차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쟁터도 아닌, 전쟁터로 향하던 길에 헨리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코넬리아는 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기로 굳게 다짐한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코넬리아가 여든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손녀딸 베니타는 어릴 때부터 베스트프렌드였던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해 있던 중, 엄마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유독 코넬리아와 가까웠던 딸 베니타가 수십 년간 코넬리아가 고이 간직해온 물건을 물려 받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선물이란 바로 은색 철재 상자에 담긴 여러 권의 일기장이었다. 코넬리아가 열두 살 때부터 감감한 마음을 쏟아낸 기록,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설사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귀여워했던 손녀일지언정 가족이 읽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록은 그렇게 베니타의 손으로 넘어갔다.

사실 베니타는 실직 후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는 남편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형편 때문에 삶의 의욕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아주 먼 옛날 코넬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변 누구보다 신앙심이 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베니타는 할머니의 일기를 하나씩 읽으면서 마침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기 시작한다. 신을 버리기로 다짐했던 코넬리아는 어떤 계기로 독실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엄마에 이어 헨리까지 사고로 잃은 뒤, 코넬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랜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삶의 고통을 겪는 손녀딸과 코넬리아의 이야기를 번갈아 보여주며 치유와 화해, 믿음, 그리고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수치심, 깊은 슬픔의 경험이 주는 가르침을 아름답게 그린 역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테리 토드(Terrie Todd)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여덟 편의 이야기를 쓴 작가로, 이후 극작가, 칼럼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제목 : MR. NICE GUY

가제 : 나이스 가이

저자 : Jennifer Miller and Jason Feifer

출판사: 추후 결정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로맨스



- \* 「나타니엘 P의 러브 어페어(*The Love Affairs of Nathaniel P*)」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완벽하게 결합된 듯한 강렬하고 화끈한 소설
- \* 젊은 부부 작가가 함께 완성한 소설, 인정사정 없는 섹스 칼럼니스트와 야심 만만한 남자의 혼란스러운 관계, 여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유쾌한 이야기

우연히 만나 하룻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그날 밤 있었던 아주 내밀한 이야기가 동네방네 소문이 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사진이 실린 것도 아니고, 실명이 거론된 건 아니지만 본인은 누구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침실 사연이 여기저기서 낄낄대는 우스갯소리가 된다면? 그냥 소문이 나는 것으로 모자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차없는 비난과 평가가 가득한 글 속에서 난도질을 당했다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으로 갓 상경한 남자, 가진 거라곤 열정 하나밖에 없는 루카스에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순진하지만 우직한 매력이 가득한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당당히 법대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루카스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는 1년 만에 과감히 법대를 그만뒀다. 어디 그뿐인가? 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는 루카스에게 이별을 고하고 단 두 달 만에 이상한 놈을 골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카스가 고향에 남아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진짜 꿈,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그는 무작정 뉴욕행을 선택했다. 그가 난생 처음으로 정기구독이라는 걸 하게 만든 잡지, 저널리스트의 꿈이 처음 시작된 60년 전통의 시사종합잡지 「엠파이어」가 그가 정한 목표였다. 그러니 한 해 연봉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적고, '팩트체커'라는 이름만 거창한 일을 담당하고, 환기라곤 거의 되지 않는 좁은 골방에서 지낼지언정 루카스에게 후회라곤 없었다. 매일 아침 세련된 뉴욕 시민들 사이에 일원이 되어 함께 출근하고 으리으리한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입장해서 거대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다. 물론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가 관심 있는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한 접시에 수천 달러씩 받는 최고급 레스토랑 메뉴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헤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충분히 만족하며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출근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엠파이어」 수석 편집장의 호출이 떨어졌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조였다.

모두가 할끔할끔 쳐다봐도 고집스레 셔츠에 넥타이 차림을 고수하는 그에게 편집장은 “자네 넥타

이 어느 브랜드 것인가?”와 같은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그저 회사에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면담을 마치고 나온 루카스 입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듣고 동료들은 갑자기 어깨를 두드려주기 시작했다. 평소 인사를 잘 나누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안쓰러운 미소를 보내질 않나, 뜻 모를 위로의 눈짓들이 마구 쏟아졌다. 보나마나 곧 이 잡지사에서 쫓겨나겠다는 동료들의 해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날, 루카스는 퇴근 후 자세히 설명해주겠다는 편집장의 비서들과 술을 퍼 마셨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뉴욕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촌뜨기라서? 속상한 전망들이 자꾸 제기되고, 속이 상한 루카스는 어디 보란 듯이 제대로 뉴욕커답게 살리라 굳게 다짐한다. 술에 만취한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뉴욕커의 생활방식은? 바로 원나잇 스탠드였다. 그 날 면담이 있기 직전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뒤질 정도로 미련을 못 버렸던 바보 같은 생활도 청산할 겸, 그는 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매력적인 여성에게 다가갔다. 황갈색 머리카락이 유독 눈길을 사로잡은 그녀와 만족스러운 하룻밤을 보낸 그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한다. 그날 만난 여자는 「엠파이어」에서 섹스 칼럼을 쓰는 그 유명한 카르멘 켈리였고, 가차없는 어투로 유명한 그 여자가 루카스와 보낸 그날 밤의 일을 서술 퍼런 글로 낱알이 기록하여 잡지에 띄어 하니 실린 것이다!

한 마디로 형편없었다는 카르멘의 비판과 충격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루카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익명으로 카르멘의 칼럼에 대한 반박문을 쓰기로 결심한다. ‘나이스 가이’라는 가명으로 보낸 그 글은 즉각 채택되어 「엠파이어」에 실리고,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다. 수 개월간 판매부수가 저조했던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은 이 일대 사건은 점점 가열되어 카르멘과 ‘나이스 가이’가 매주 만나 함께 밤을 보내고 ‘감상평’을 동시에 기고하기로 하는, 믿기 힘든 사태로 번진다. 성적 능력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한 치의 불만족도 용납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여자 카르멘, 순수하지만 승부욕 하나만은 뒤지지 않는 루카스의 이 요상하고 흥미진진한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이 긴장감 넘치는 관계 속에서, 루카스는 전문 기자가 되려는 자신의 열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대가를 체감하기 시작한다. 그는 첫 상경하던 날의 다짐처럼 뉴욕에서 모든 것을 걸고 기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두 젊은 부부 작가가 함께 완성한 소설답게 두 남녀 주인공의 생생한 심리묘사가 돋보이는 유쾌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제니퍼 밀러(Jennifer Miller)는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글래머 지까지로부터 “엄청나게 중독성 있는 소설”로 소개된 데뷔소설 『The Year of the Gadfly』(2012)에 이어 2015년 「코스모폴리탄」 선정 도서에 포함된 『The Heart You Carry Home』(2015)을 쓴 소설가이다. 현재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등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제이슨 페이러(Jason Feifer)는 「엔터프러너(Entrepreneur)」지 책임 편집장을 맡고 있다. 「맨즈헬스」, 「맥심」에서도 편집 일을 했으며 그 외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 **NON- FICTION**

제목 : DEMOCRACY IN CHAINS

가제 : 족쇄에 매인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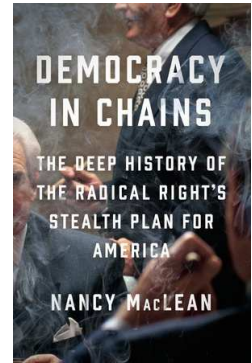
저자 : Nancy MacLe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정치)



**\* “자유주의가 대세를 차지하고 정부를 장악한 60년간의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한 책” – NPR**

**\* “미국 정부를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근원을 현재까지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 「북리스트」**

국가 권력을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부유층이 장악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부터 이런 불안한 사태가 시작됐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조합을 제거하고 투표권을 억압하고 공교육을 최대한 민영화하고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망가뜨리려는 자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전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적한다. 저자가 지목한 이 치밀한 아이디어의 시초는 1986년 노벨상 수상자로도 잘 알려진 정치 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이다. 그 저명한 경제학자와 그를 옹호한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서서히 변화시킨 과정을 이 책은 상세히 설명한다.

백인 지식층이 국가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는 계획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등한 소수의 부유층이 이 명확한 열세를 딛고 우위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미국을 “만드는 세력”과 “장악하는 세력”으로 양분해야 한다는 뷰캐넌의 계획에 크게 동조한 기업가들, 우익 단체들은 앞 다투어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저자는 공공에 공개된 뷰캐넌의 문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오만하고 타협이라곤 절대 허락하지 않은 그의 저돌적인 계획을 낱알이 재구성한다. 뷰캐넌은 “민주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아가던 중 거대 에너지 화학 기업 ‘코크 인더스트리스’ 소유주로 잘 알려진 찰스 코크를 발견한다. 정부가 성장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위협을 받게 된다고 굳게 믿은 뷰캐넌이 여러 면에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찰스 코크는 뷰캐넌의 전략을 인정사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낸다.

공립학교, 우편 서비스, 교도소, 노동법, 사회보장, 국가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

투표권 보장, 해외 원조,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 소득세를 모두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본 뷰캐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법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뷰캐넌의 집요한 전략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실화된 민주주의의 극심한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계획이 공화당의 정권 장악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가 10년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우익과 거대한 자본가들의 소름 끼치는 연합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정치서다.

#### <목차>

서문. 남부 사람들의 조용한 거래

머리말. 마스터 클래스에 등장한 막스

#### 1부. 아이디어의 구체화

- 1장.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다
- 2장. 시카고로 간 시골 소년
- 3장. 사업의 진짜 목적
- 4장. 껍질이 벗겨지면 그대로 뒀라
- 5장. 정부로부터 자본주의를 보호해야 한다
- 6장. 혁명 타도에는 시간이 걸린다
- 7장. 미쳐가는 세상
- 8장.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9장. 타협은 없다

#### 2부. 아이디어의 실행

- 10장. 빗장을 걸어 잠근 헌법
- 11장. 원칙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 12장. 콜럼버스를 부추긴 힘

#### 3부. 추락

결론. 준비

#### <저자 소개>

낸시 맥밀란(Nancy MacLean)은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저서 『Behind the Mask of Chivalry』와 시카고 트리뷴이 ‘최고의 현대 역사서’라 일컬은 『Freedom is Not Enough』 등을 발표했다. 현재 듀크 대학교 역사, 공공정책 교수를 맡고 있다.

제목 : COMMUNICATE LIKE A LEADER

가제 : 리더다운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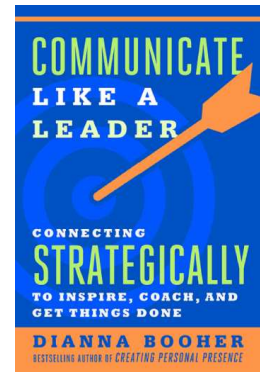
저자 : Dianna Booher

출판사 Berrett- 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7년 6월 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 \*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쉽게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The New One Minute Manager*』의 저자 켄 블랑차드
- \* “과장되거나 버릴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 산타클라라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베스트셀러 『*The Leadership Challenge*』의 저자 킴 쿠제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팀장으로, 혹은 부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금세 체감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일에 필요한 기술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람을 다루고 관리하는 리더십과 의사소통 기술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오르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뼈저리는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이 찾는 해결책은? 바로 ‘마이크로 매니저’ 즉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은 물론 개인 생활까지 개입해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결국 갈등은 훨씬 더 악화된다.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건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상관이 싫어서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다. 자리를 잠시만 비워도 그 이유를 캐묻고 전화통화만 해도 무슨 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다 알고 있고 일을 시켜놓고서 안심하지 못해 자신이 꼭 다시 점검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는 집요한 관리 방식은 구성원에게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게 만든다. 이 불안정한 심리는 업무 현장 전체에 전염되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기계가 사용되는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분명 가까운 동료였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날 선 눈길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되어버린 상황, 승진만 하면 꼭 막힌 벽처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은 왜 이처럼 흔히 발생할까? 리더십 컨설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온 저자는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이 불편하고 비생산적인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제시한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사전적으로 ‘필수’,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리더의 역할을 말하기, 협상하기, 글쓰기, 회의, 네트워크 형성하기로 나누어 리더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나누는 대화, 글, 관계 형성의 상황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후자에 반드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는 리더로서 반드시 익혀야

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원칙을 설명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의 분석,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과 채택, 목적이 분명한 해결책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전 과정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뛰어난 리더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 판단 능력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메시지, 지시, 정보로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필수 전략을 통해 훨씬 더 수월하게 일하고 성과는 높일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이다.

#### <목차>

머리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1부. 전략적 리더십 – 사람과 수익을 얻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1- 15장)

2부. 전략적 대화 – 목적이 뚜렷한 유대 (16- 20장)

3부. 전략적 협상 – 양쪽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찾아라 (21- 23장)

4부. 전략적 발언 – 마음을 설득하고 가슴을 얻어라 (24- 2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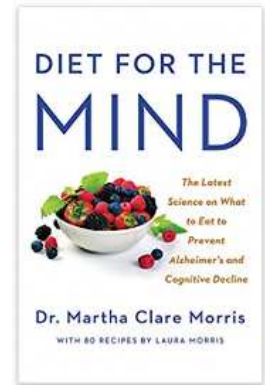
5부. 전략적 글쓰기 – 요점을 명시하라 (29- 31장)

6부. 전략적 회의 – 결과를 밝혀라 (32- 36장)

#### <저자 소개>

다이애나 부허(Dianna Booher)는 ‘부허 연구소(Booher Research Institute)’의 CEO이자 저술가로, 현재까지 발표한 마흔일곱 권이 넘는 저서는 총 400만 권 이상 판매됐다.

제목 : DIET FOR THE MIND  
가제 : 마인드 다이어트  
저자 : Martha Clare Morri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12월 1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건강, 의학



- \*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마인드 다이어트’의 창시자, 영양의학 전문가가 제안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법
- \*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음식과 영양소, 수십 가지 레시피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올랐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치매의 주된 유형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숫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사망 원인 중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이 알츠하이머나 그 외의 치매로 세상을 떠나는 형편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와 동의어로 여겨질 만큼 치매 환자 중 적게는 60 퍼센트, 많게는 80 퍼센트까지 차지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치매라는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기억력 상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언어 능력의 저하, 집중력 저하, 시력을 통한 사물 인지 오류, 합리적 사고와 판단력 상실로 대표되는 치매는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치료법이 없다면 예방이 최선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약화되는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뇌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저자는 실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된 식습관의 엄청난 영향과 올바른 영양 공급이 뇌 기능은 물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음식은 어떻게 뇌 기능에 영향을 줄까? 우리는 단순히 허기가 지면 음식을 먹고 미각이 충족되는 것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인간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하면, 뇌 기능 역시 몸의 영양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1993년부터 시카고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와 은퇴자, 요양원 거주자 1,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신경학적 기능과 인지 기능, 식생활의 관계를 조사한 두 건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년과 노년층의 인지기능 저하와 식생활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닌 ‘획득’되는 병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와 식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통 곡류, 잎채소, 지방이 제거된 단백질, 콩류, 채소가 중심이 되는 식단의 중요성과 수십 가지 레시피, 비타민, 알코올, 카페인 등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영향도 함께 제시된다.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체중 감량, 신체 에너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습관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유익한 건강서다.

#### <목차>

머리말. 가슴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

#### 1부. 마인드 다이어트의 과학적 원리

1장.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2장. 뇌를 위한 필수 영양소

3장. 매일 먹는 음식

4장. 매주 먹어야 하는 음식

5장. 뇌에 무익하고 정신 능력을 해치는 음식

6장. 지중해 식단, 대쉬(DASH) 다이어트, 마인드 다이어트 비교 분석

#### 2부. 마인드 다이어트에 맞는 생활 방식, 레시피

7장. 가장 건강하게 사는 법

8장. 아침식사

9장. 통 곡류

10장. 잎 채소

11장. 기타 채소

12장. 콩과 콩과식물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마사 클레어 모리스(Martha Clare Morris)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 시카고 루쉬 의과대학교에서 역학 교수를 맡고 있다. 20년 이상 알츠하이머와 인지기능 저하, 식생활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제목 : THE FORGOTTEN ART OF LOVE

가제 : 잊혀진 사랑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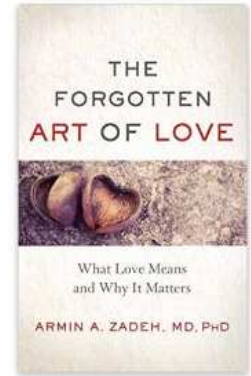
저자 : Armin A. Zadeh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7년 10월 1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심리학



- \* 심혈관 질환 전문의이자 철학 박사 학위를 소유하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독특한 이력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본질과 의미
- \* 생물학, 심리학, 철학, 종교, 역사,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사랑의 중요성

행복한 삶을 좌우하는 요소로 사랑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특별한 감정이 어떻게 처음 형성되고 발달하는지, 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수단이 사랑인지에 관한 지식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직업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취미생활만 하더라도 제대로 통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기량을 갈고 닦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심지어 비디오 게임이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수 개월, 심지어 수 년씩 연습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나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복을 제대로 알고 배우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의과대학에서 심장 전문의로 공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병이 아닌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는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이 책에서 제공한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 본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말과 ‘나는 그 사람이 좋아’라고 할 때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고, “사랑해”라는 똑같은 말도 연인에게 할 때와 부모, 혹은 오랜 친구에게 건넬 때의 의미에 확연한 차이가 있듯이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사랑의 감정은 제각기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차이를 알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흔히들 사랑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운에 따라, 혹은 우연한 기회로 어쩌다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저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생각에 반기를 들고,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사랑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1950년대에 사랑의 본질과 개념을 밝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에리히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을 토대로, 저자는 오래 전의 심리학적 연구와 다소 과도한 종교적 관점에서 탄생한 이 유명한 책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최근에 들어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밝혀진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으로 사랑의 다양한 본질을 이 책에서 다시 정리했다. 또한 섹스나 애착을 사랑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 전체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도 함께 제공한다.

모호한 개념으로만 여겨지는 사랑을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의 하나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다양한 방면의 연구, 정보, 지식에서 모색해본 흥미로운 책이다.

#### <목차>

머리말.

- 1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 2장.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 3장. 사랑의 기술
  - 4장. 자기애
  - 5장. 사랑, 그리고 로맨틱한 관계
  - 6장. 사랑과 섹스
  - 7장. 사랑과 성별
  - 8장. 아이들을 향한 사랑
  - 9장. 사랑과 종교
  - 10장. 사랑과 사회
  - 11장. 사랑과 세상
  - 12장. 사랑과 인간의 다양성
- (이하 생략, 총 16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아민 자데(Armin Zadeh)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로 학술 논문과 다양한 간행물에 연구 자료와 글을 광범위하게 게재해 왔다.

제목: TWENTIETH CENTURY BOY

가제: 20세기 소년

저자: Duncan Hannah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8년 3월 13일

분량: 480 페이지

장르: 회고록



- \* ‘가장 미국다운 회화’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던칸 한나가 이야기하는 **1970년대 뉴욕**
- \* 중서부에서 뉴욕에 첫 발을 디디고 앤디 워홀, 패티 스미스 등과 어울리며 뉴욕의 가장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곳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고 꿈꾼 다채로운 생각들

사실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차분한 느낌이 가득한 작품들로 화려한 회화 작품들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화가, 던칸 한나가 열일곱 살 때 처음 쓰기 시작한 자신의 일기장을 묶어 회고록을 완성했다. 앤디 워홀이 스무 살 이상 어린 그를 친구처럼 아끼며 섬세한 그림을 극찬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던칸 한나는 2012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그림을 통해 항상 20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점점 더 큰 부를 쌓아가던 상류층 사회 사람들의 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온 그는 잊혀진 시대에 대한 향수와 함께 어딘가 쓸쓸한 감성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 받는다. 이번에 완성한 회고록 역시 제목에 고스란히 담긴 주제처럼 20세기 후반, 1970년대 뉴욕에서 예술가로 첫 발을 디딘 그가 보고, 듣고, 느낀 당시의 수많은 감정과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한다. 일기장에 직접 작성한 글이니만큼 회고록을 쓰면서 기억을 다시 고집어내는 대신, 저자 자신도 잊고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시간을 살았던 젊은 저자가 기록한 그대로 전달되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안락함, 평온함과 깊은 쓸쓸함의 대비는 일기장에 담긴 저자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 사립학교를 2년이나 일찍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간 아버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 받은 어머니, 부모님처럼 똑 부러지는 성격에 마틴 루터 킹을 따라 미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누나,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유복한 삶을 누린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 서서히 탈선의 길로 접어든다. 이미 열네 살에 흡연을 시작하고 대마초에 이어 각종 불법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모자라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친구에게 마약을 판 것이 학교에 적발되어 결국 강제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의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은 말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 시절 저자의 삶은 혼란과 방황의 연속이었다. 여러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남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던 그는 퇴학 후 고심 끝에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정했다. 바로 뉴욕이었다.

지금과 달리 한 달에 400 달러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건 다 즐길 수 있었던 1970년대 뉴욕에서 저자는 본격적인 예술 공부를 시작하고 동시에 술, 여자, 마약, 영화, 로큰롤,

책, 파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당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동성애자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여,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밤 늦게, 때로는 다음 날 아침에 시리즈처럼 똑같은 노트를 구해 빈 페이지에 남긴 그 시절의 기록에는 이미 너무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젊은’ 뉴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태우던 야망과 예술, 문화, 사회의 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자의 이야기는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 <목차>

머리말

핑크

포격수

중얼거림

스푸트니크

핵 장어

다이빙

영화 같은 몽상

치정 범죄

현미경

독신자의 드라마

애정

(이하 생략, 총 17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던칸 한나(Duncan Hannah)는 바드 칼리지와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하고 1970년대 뉴욕에서 화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1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50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목 : HOW TO SURVIVE YOUR CHILDHOOD NOW THAT YOU'RE AN ADULT

가제 : 어릴 때 잘못 배운 행복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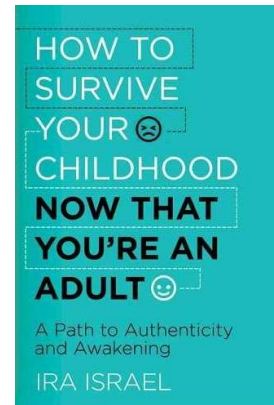
저자 : Ira Israel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7년 11월 1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어릴 때부터 잘못 형성된 '행복'의 기준을 어른이 되어 바로잡는 방법**

**\* 공인 심리치료사가 직접 목격하고 치유를 도우며 깨달은 진정한 행복의 열쇠**

가만히 놔두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가족, 친구, 동료들이 툭 던진 말이나 시선, 낯선 사람들의 눈빛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사람들은 무수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학교, 번듯한 직장을 꿈꾸는 이유는 '잘 살기' 때문이라 믿고,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잘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 기준이 인생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닐까? 때로는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며 산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러고 산다'고 얼버무리며 불행한 감정을 애써 누르기도 한다. 왜 이런 모순된 상황에 휩쓸리며 살게 되었을까? 30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며 삶의 갖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만나온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잘못 형성된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 받기를 바라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진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 혹은 획득해야 할 것들이 무수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재능이 남다른가, 외모가 출중하든가, 좋은 학교를 나오든가, 말이나 글, 그림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 쓰고 그리든가, 돈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 무조건적 사랑을 향한 욕구와 정반대되는 사회적 잣대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목표로 입력되고, 거기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 잘못된 자아, 자신의 본질과 전혀 다르고 남들에게 충분히 사랑 받을 수 있는 껍질, 표면적 자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지만 이 껍질이 개개인의 개성, 본질과 별개로 형성되고 스스로 껍질에 느끼는 낯선 기분, 사람들이 오직 그 번지르르한 껍질만을 추앙한다는 사실이 던지는 씁쓸함이 현대인의 극심한 분노, 우울증, 불행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무려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유전적 결함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오직 '사랑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껍질을 벗어 던지고, 그 고된 과정에서 외면한 진짜 자신을 찾아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이 끝없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없앨 수 있다. 저자는 사회가 '적절하다'고 정한 직업, 관계, 소유물을

얻기 위한 무가치한 노력이나 어느 순간 솟아난 반항심 때문에 요령 없이 화만 내다 부작용만 가득 안고 마는 사태를 피하면서 어린 시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잘못된 생각, 오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가 심리치료에 직접 활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부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남들이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 있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근거 없는 두려움과 편견을 지우고 불확실한 미래나 완벽하지 않는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다.

#### <목차>

##### 머리말

- 1장. 진정성이란 무엇일까
- 2장. ‘전문적인 어린이’가 되지 않으려면?
- 3장. 분노 공장이 되어버린 마음
- 4장. 로맨스에 관한 오해
- 5장. 바쁜 게 다가 아니다
- 6장. 열 식히고 인생을 잘 지켜나가는 법
- 7장. 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 8장. 무신론자면 불교신자가 될 수 있을까?
- 9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노력
- 10장. 삶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
- 11장. 진정성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라

##### 결론

#### <저자 소개>

아이라 이스라엘(Ira Israel)은 공인 심리치료사이자 상담가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is Meditation Made Easy’와 DVD ‘A Beginners Guide to Happiness’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